이 고집 고집을 다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로(大路)의 길이 아니니라. 정말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천야만야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그거는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못 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나는 금방 듣고도 또 잊어버리죠.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하하.

질문자1(남) 바로 그러한 모든 생각을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 놓는….

큰스님 음, 그랬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실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이런다면 스스로서 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뜻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변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싱긋이 웃을 때가 있고요, 나는 가끔 그러길 잘해요.

옛날에도 어떤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 부모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것은 무슨 연고인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늘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땅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더란 얘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들이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면 될 거를 그냥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걸어가나 하는 생각에 고만 걸리는 겁니다. 다리 많은 지네가 어떻게 서슴지 않고 잘 걸어갑니까? 다리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두 다리로 걸어가건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걸릴까 봐 바들바들 떠니까 걸리죠. 모두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잘못이 거기에 대두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스려야 한다.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놔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여여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 행을 하고 이익하게 말하고 또는 이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남) 방금 전에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일체 놓는 것도 또 다스려 나가는 것도 그 한 믿음에 결국은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하하. 어떻게 믿긴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믿어야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인데 주인이 과거로부터 이끌고, 지금도 또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믿겠소? 허공을 믿겠소, 이름을 믿겠소, 고깃덩어리 형상을 믿겠소, 무엇을 믿겠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 사회 국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을 주며, 또 남의 보증을 서고 망하고 온통 이러나요? 어떻게 자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대신 자 줄 수 없단 얘깁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인 자신을 어째서 못 믿습니까? 사람이 본래 직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목석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물질에, 50%의 물질의 관념을 가지고 습이 되어서 졸졸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 뭐, 또 날짜를 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고집, 또 굴왕신이 내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고집, 팔자 운명이 있다는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모두 고집을 세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고집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한 큰스님이 이런 말을 하십디다. "눈을 뜨고 삼 년만 쉬어라." 자거라 이 소리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 년을 잡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일제 시대 때 먹을 거나 있나요? 건빵을 우거지에다가 넣고서는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는데 아, 딴 집들은 보리밥이라도 그래도 쌀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걸 보았거든요. "아무개네 집은 그렇게 해 먹는데, 우린 이걸 먹어?" 그러니까 "그 집의 쌀밥보다 우리집 우거지에 건빵 넣고 끓인 게 더 좋으니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예 천부당만부당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또는 업보,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윤회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녹아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마지막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육적, 육근의 작용이 공하여 칠각이라 설하시는데 육근의 작용과 그것이 공한 칠각, 팔식, 구해탈 그리고 십이인연을 좀 더 상세히 설법해 주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그거를 이론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육근, 육진, 육식이 공했어. 공해서 칠각이 되고, 아까도 그랬잖어, 칠해탈이라고. 칠해탈도 되고 칠활궁공법도 되는 거지.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법이야. 이 선(禪)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무슨 육근이 어떻고 육진이 어떻고 육식이 어떻고 이런 게 하등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면 어느 하시절에 내가 나를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깐 아까 얘기했듯 그게 공했어, 전부가. 일체가 다 공했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라고 했던 거야.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라구.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빙빙 돌아서 만날 그놈의 걸 굴려 봤자 맛은 생전 못 보고, 그 씨를 되심어서 되나오고 되먹이고 되나오고, 되먹일 수가 없어.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부모 형제 간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아무리 아무리 천도를 시켜도 안 돼요.

큰스님 그거 되는 방법이 있죠. 그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러세요. 허허허. 네놈이 과거로부터 날 이끌어 왔고 그놈도 과거로부터 끌어왔으니 그놈들끼리 해결해야지 내가 나서면 안 되죠. 그 속에 든 자기의 마음의 주인공만이 양면에서 다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아예 착해집니다.

질문자2(남) 인과응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큰스님 인과응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질문자2(남) 내내 천도를 했습니다, 조상들한테요. 그래도 절대 안 들어요.

큰스님 하하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질문자2(남) 저도 조상병이 천칙되었어요.

큰스님 글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무조건 하세요. 저 수원에 어떤 삼 형제가 사는데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니까 담요에다 뚤뚤 말아서 아무 데나 그냥 묻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부터 삼 형제가 서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작대기를 들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때리고 싸우고 깨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삼 형제가 만날 싸우니까 그 어머니가 여길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컸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좀 잘해 드려야지 담요에다 둘둘 말아서 그렇게 했으니…. 딴 데다가 잘 모시든가 화장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양심적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하면서 거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시키고 천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죠. "그래, 아파서 드러누운 사람을 저희들만 살겠다고 산 채로, 그냥 놔두고선 달아나가서 그냥 죽게 만들어? 또 그렇게 죽은 걸 동네 사람들이 둘둘 말아서 갖다 묻은 거를 자식이 돼서 여직껏 내버려 두었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담요에다가 둘둘 말아서 묻은 거를 아느녜요. 이렇게 답답해요.

질문자2(남) 그럼, 화장도 하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진심으로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 줬더니 그렇게 하고부터 삼 형제가 아주 절친해졌답니다. 그리고 집안도 잘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대가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새로 육을 이끌고 이 세상으로 또다시 나올 텐데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합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1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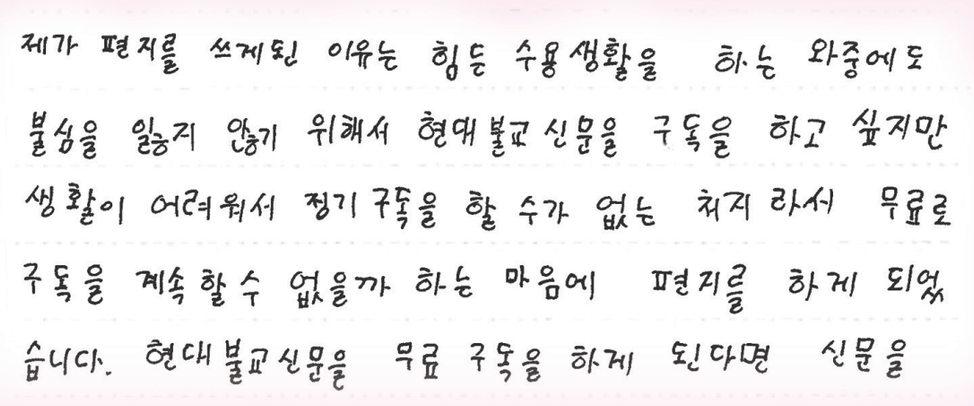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